복지혜택 못받는 빈곤층 없게

목포시, 새 대상자에 생계비 지원

목포시가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자 증가 및 서비스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 지원에 적극 나선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연초 이점관 목포부시장을 단장으로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긴급복지지원 확대 등 새로 발생한 빈곤층 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서민경제대책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기업 및 실업대책 ▲빈곤층 생활안정대책 ▲긴급복지지원대책 등 4개 추진분야로 나눠 50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말까지 최근 2년이내 비수급 빈곤층으로 관리해온 대상자명부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는 생계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급한다.

또 수급제외가구는 긴급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목포복지재단 등과 연계해 민간결연 후원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민생안정대책단 구성을 계기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2천만원 공사 군수결재 생략

신안군, 실·과·소에 집행권 위임

신안군이 올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존 관행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조기집행 소규모사업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과·소에 계약집행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함으로써 조기집행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체결의 경우 계약부서에서만 실시해왔다.

실·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금액도 공사·용역 500만원, 물품구입 300만원, 사업소의 경우 공사 1천만원, 용역 500만원, 물품 3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기집행을 위한 소규모 사업인 경우 실·과는 공사·용역·물품구입 1천만원, 사업소는 공사 2천만원, 용역 1천만원, 물품구입은 2천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이밖에 실·과에서 바로 계약체결과 지출할 수 있는 일상경비의 집행금액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30% 상향 조정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실·과·소에서 웬만한 설계용역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바로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공사 발주기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설·대보름 민속놀이 체험마당

도 농업박물관 25일~내달 8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설 연휴인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09년 설·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개설 운영한다.

체험 놀이로는 윷놀이를 비롯한 팽이치기·제기차기·투호·굴렁쇠 굴리기·줄다리기·널뛰기 등 행사기간 동안 10여 가지가 넘는 민속놀이 체험 코너가 마련된다.

체험행사는 관람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체험도구 사용료는 무료다.

농업박물관은 또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나불도 체육공원'에서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 대동놀이 한마당'도 펼칠 계획이다.

농업박물관과 '나불도 생태체험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생태학교 회원가족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와 먹을거리 체험이 이뤄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 더위팔기·쥐불놀이·불 넘기·달집 태우기·지신밟기 등 민속놀이 체험과 밤·호도·땅콩 등 부럼 깨기, 오곡밥 먹기, 고구마 구워먹기 등의 먹을거리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

무안, 39개 하천 퇴적토 준설

무안군이 홍수와 집중호우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작업을 실시한다.

군은 매년 집중호우로 하천내 퇴적토가 쌓이고, 갈대 잡목 등이 무성해 유수소통이 원활치 못해 농경지 침수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정비가 필요한 하천에 대해 퇴적토 준설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올해 준설작업이 시행될 하천은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으로 모두 39개소에 연장 39.87km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70% 이상인 28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재해위험지역 및 상습침수지역을 우선 정비해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아름답게 정비해 깨끗한 무안의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목포항 해양환경관리대 운영

바닷가 쓰레기·폐기물 투기 단속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평화광장과 목포내항, 북항 일대의 해양환경 감시업무를 강화해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2일부터 목포항 해양환경관리대 운영에 들어갔다.

해양환경관리대는 바닷가 불법 쓰레기투기를 집중 감시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갖춰 해상부유 쓰레기 등을 즉시 제거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오는 3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폐기물 해양투기 단속 업무도 보조한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성, 매일 2인 2개조로 평화광장과 내항, 북항 등을 순찰한다"면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인원을 추가 확보해 2인 4개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설 대목 신안 비금 '섬초' 출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서해 전 해상에 강풍 및 풍랑주의보가 내려 여객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신안 비금농협(조합장 김형석)이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지역 특산물인 '섬초'(시금치)를 출하하기 위해 근해 화물전용선을 임대해 선적하고 있다. 설대목에 출하되는 '섬초'는 90t(15kg 6천상자) 규모로 2억여원에 달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어르신들 청결한 마음으로 장수하세요"

진도군 의신면 '신의회' 10년간 노인에 목욕 봉사

진도군 의신면의 한 봉사단체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10여년 동안 펼쳐와 지역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의신면 봉사단체인 신의회(회장 이정관)가 최근 관광버스를 이용,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목욕봉사와 함께 따뜻한 떡국과 과일을 대접했다.

윤행자(의신면 칠전리·66)씨는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의회 회원 부부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정성으로 목욕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마음까지 훈훈해진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의회는 지난 97년 창립, 현재 회원 68명이 활동하고 있다.

신의회는 목욕봉사 외에도 경로위안잔치,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장학사업, 관광지 정화사업, 환경보전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 문학축전' 문예진흥기금 사업 선정

작년 이어 두번째…2천만원 상금 받아

목포문학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예진흥기금 정기 공모사업에 '목포! 문학축전'이 선정돼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목포문학관은 올해 전국 문학인을 초청하고 문학콘서트, 문학체험, 문학경연대회, 도서전시회, 문학 강연, 디지털로 만나는 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목포 문학축전을 전국대표 문학축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목포문학관은 문예대학과 어린이 문학교실, 토요일의 시낭송교실, 김우진 문학제, 박화성 문학 문화페스티벌, 차범석 연극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 시·소설·동화·수필 등 '예향 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품을 선정, 작품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새 얼 굴 /

"녹색성장 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황 정 걸 다도해 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

"녹색성장 기반의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황정걸(53)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우선 원칙으로 해 생태관광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인·허가 검토 등을 통해 국립공원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청송출신인 황 소장은 지난 87년 주왕산사무소에서 공원관리자로서 첫발을 내디딘 후 월악산, 설악산,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다양한 현장실무를 경험했으며 본부 총무팀 과장, 북한산 공원행정팀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유명수씨와 사이에 1남1녀, 취미는 바둑.

/신안=조완남기자 wncho@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목 포	(061)276-9200	나주시	(061)332-5544
여 수	(061)653-8444	강 진	(061)434-6830	나주군	(061)332-7764
광 양	(061)792-8111	무 안	(061)452-8535	담 양	(061)383-8116
순 천	(061)746-8111	신 안	(061)243-3758	영 암	(061)473-2340
고 흥	(061)842-2121	완 도	(061)554-6677	장 성	(061)392-2100
구 례	(061)783-8111	영 광	(061)351-0055	장 흥	(061)863-8822
곡 성	(061)362-8111	진 도	(061)543-0100	화 순	(061)374-4423
보 성	(061)853-1190	함 평	(061)324-8111	광 산	(062)944-0444
		해 남	(061)534-5151		